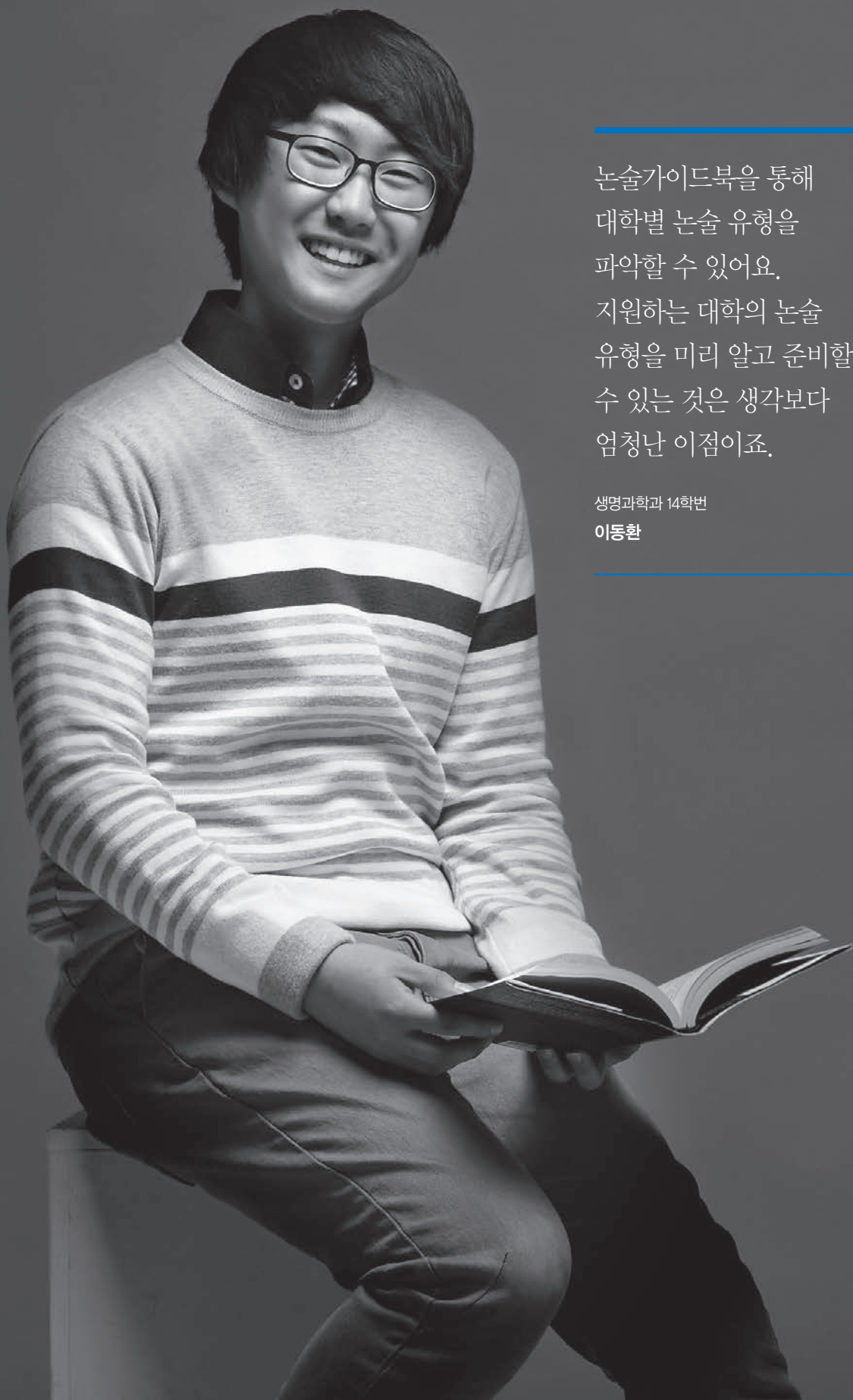


Section 04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글로벌리더 에세이





논술가이드북을 통해
대학별 논술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요.
지원하는 대학의 논술
유형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이점이죠.

생명과학과 14학번
이동환

선배들이 말하는 중앙대학교 논술

Interview 03

논술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

— 저는 ①확실한 개념 ②한 문제를 완벽히 풀이 ③시간에 맞춰 많이 풀어보기, 이 순서로 논술을 준비했습니다. 과학엔 자신이 있었기에 수학책 만들기 동아리를 만들어 개념을 보다 확실히 알기 위해 노력했으며 한 달에 한 번 부원들과 모의 논술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답을 모르는 문제라도 제시문에 유추해서 일단 답안을 작성한 후 모범답안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혼자 하는 것 보다 친구들과 한 문제를 같이 푼 후 서로의 답안을 보며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게 빠르고 정확한 방법인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동아리원들끼리 한 문제를 두고 상의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 모범답안보다 더 나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하나의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전부 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전 많은 문제를 풀며 간결하게 말만으로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담는 방법을 연습해야 해요. 시간에 제한을 두고 논술을 쓴다면 시간제한이 없을 때와 다른 느낌을 받을 겁니다. 실제로 시험을 볼 땐 시간이 많이 모자란 느낌을 받으므로 익숙해져야 실전에서 평소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논술가이드북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 각 대학교는 특유의 논술 문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논술가이드북을 통해 그 스타일들을 느껴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중앙대 논술가이드북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중앙대 입시설명회에서 기출문제를 보고 문제 유형분석을 들으면서 올해 논술 문제를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변형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제 의견을 써내려 갈 수 있었죠. 학교의 논술 스타일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어드밴티지입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 저도 1학년 때 논술 문제를 접해보기 전엔 막연한 자신이 있었지만 막상 접해보니 단답형 답안만 작성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논술이란 것을 너무 어렵게 여겨서 '어떻게 써야하지?'란 생각만 하다가 손도 못 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답안을 보고 따라 써보는 것에서 시작해 점점 글에 살을 붙일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매끄럽게 풀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논술은 많은 문제를 풀어 당황하지 않고 써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수 있는 멋진 대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주는
응원의 메시지

— 제가 후배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 길을 선택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라'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에게 맞는 길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해 나아가다 보면 주변에 '누구는 저런 것도 한다더라', '이 전형이 이번에 많이 뽑는다더라' 등의 혹 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처음 정한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올 수 있기 그렇게 꿈을 낮추지 말고 꼭 나아가세요. 힘들 땐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찾아 하루동안 미친 듯이 하세요. 다음 날 다시 힘내서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 꼭 중앙대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글로벌리더 에세이

Section 04 인문계열

2014학년도 글로벌리더 전형은 2015학년도에는 특기자(인문) 전형으로 전형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어에세이는 지문과 문제 모두 국문으로 출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답안은 기존과 같이 해당 모집단위 별 언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착오 없이 준비하기 바랍니다.

인문계열 글로벌리더 에세이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 in English. (문제 1)

"Privacy is dead. Get over it," says Scott McNealy, CEO of Sun Microsystems. Surveillance technology and the business of daily spying go on largely unnoticed. People may be occasionally annoyed, but they appreciate how much easier life is in the computer age. They unhesitatingly forgo being unobserved, anonymous, unavailable. They have no sense of having less personal freedom. They do not even see that there is something to be defended. They attach too little importance to their private sphere to want to protect it at the expense of other advantages. The erosion of privacy therefore tends to occur by quiescent accretion: through apathy, indifference, or tacit support for measures that are packaged as essential or appear innocuous. Still, we should not pretend that in our digital world the regularization of privacy-invading conduct will be unproblematic; far from it. No longer is one allowed to withdraw from society and live without being pestered. The individual cannot secretly change masks and become someone else. He can neither disguise himself nor temporarily disappear. Everything one does is evaluated and judged. Nothing escapes surveillance. However, this outlook seems to frighten hardly anyone.

[문제 1] Summarize the above passage in your own words, using examples of your choice. Write 10–15 lines. (30 points)

Read the following passages and answer the questions in English. (문제 2~3)

- (A) — Ethical consumption means buying products and services that are made ethically. This means causing minimal harm to humans, animal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money makes the world go round, and deciding how we spend our money might just help save it. To ethical consumers, spending their money is like voting every time they go shopping. For example, buying a small car instead of a gas-guzzling big one is a vote against climate change. Avoiding goods with heavy packaging is a vote against abusing natural resources. Even small, everyday purchases, such as coffee or tea are a vote for something. As consumers, we have a great deal of power in our pockets because we can change company policies through conscious buying.

- (B) — These days, people show their support for a cause with acts on social network sites such as “liking” or sharing a post or joining a page for the cause. However, the excitement may actually be masking the reality that social network sites do little to strengthen social movements and effect change. Most acknowledge that citizens are active through the Internet, but this activity is a pointless showcasing that does more to make the activists feel good about themselves than to address urgent social matters. Worries have been expressed that these activities are pointless in that they are unable to achieve social goals and can derail social participants away from the more effective forms of participation in the activist repertoire that have traditionally been used. In terms of social network sites’ ability to strengthen social movements, these technologies may in fact be promoting a form of “slacktivism” or “clicktivism” instead of activism, and do little more than promote “weak ties,” which can bring a million people to a page on social network sites but fail to mobilize a thousand people in the street to actually effect change.
- (C) — People have an ongoing interest in how others perceive and evaluate them. Each year, people spend billions of dollars on diets, cosmetics, and plastic surgery—all intended to make them more attractive to others. Political candidates are packaged for the public’s consumption. Parents stress to their children the importance of first impressions and, when trying to control public misbehaviors, may admonish them to consider “what the neighbors will think.” Millions of people become paralyzed at the prospect of speaking or performing in public because they are worried about the audience’s evaluation of them. Even in relatively mundane encounters at home, work, school, and elsewhere, people monitor others’ reactions to them and often try to convey images of themselves that promote their attainment of personal goals. Impression management (also called self-presentation) refers to the process by which individuals attempt to control the impressions others form of them. Because the impressions people make on others have implications for how others perceive, evaluate, and treat them, as well as for their own views of themselves, people behave in ways that will create certain impressions in others’ eyes.

[문제 2] Referring to the argument presented in Passage (A), support the argument presented in Passage (B) by providing an example of your choice. Do not use examples illustrated in Passage (A). Write 10–15 lines. (30 points)

[문제 3] Some may argue that people are engaged in ethical consumption for impression management illustrated in Passage (C). Refute this argument by taking the position of Passage (A). Write 10–15 lines. (40 points)

출제 의도

- [문제 1] — 1번 문항은 제시문에 설명된 주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보여주는 예를 사용하여 본인의 표현으로 요약하는 문항이다. 제시문은 Wolfgang Irfinger(2008)의 *Privacy: A Manifesto*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하였다. 본 문제는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인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과 적합한 예를 제시할 수 있는 추론 및 응용 능력을 측정하여, 언어 능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 [문제 2] — 2번 문항은 한 제시문 안에 있는 중심 주장을 내용상 연관을 찾을 수 있는 다른 제시문의 중심 주장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지지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제시문의 중심 주장을 파악하는 능력과 제시문간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는 두 개의 제시문 내용들을 통합하는 종합적 추론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제시문 (A)는 금성 출판사에서 발행한 *High School English II* (권오량 외 7인, 2009)의 독해 지문 'Becoming an Ethical Consumer'에서 발췌하였고, 제시문 (B)는 Jonathan A. Obar와 3인이 *Journal of Information Policy*에 게재한 'Advocacy 2.0: An Analysis of How Advocacy Groups in the United States Perceive and Use Social Media as Tools for Facilitating Civic Engagement and Collective Action'과 Henrik Serup Christensen이 *First Monday*에 게재한 'Political Activities on the Internet: Slacktivism or Political Participation by Other Means?'에서 발췌·수정한 것이다. 제시문 (A)에서 언급된 윤리적 소비의 능동적 사회참여와 제시문 (B)에서 언급된 어떤 사안에 대한 지지를 SNS상에서만 표현하는 소극적 행동들의 차이를 파악하도록 문항을 출제하였다. 또한, 채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답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폐쇄형 문항을 출제하였다.
- [문제 3] — 3번 문항은 제시문 (C)의 관점에서 제시문 (A)의 내용을 평가한 가상의 주장을 논박하라는 문제이다. 이 문항은 제시문 (C)의 논지를 중심으로 주어진 가상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한 후, 비판적 분석력과 종합적 추론 능력을 활용하여 제시문 (A)의 논지에서 가상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설득력있게 서술하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우선, 제시문 (C)는 Mark R. Leary와 Robin M. Kowalski가 *Psychological Bulletin*에 출판한 논문 "Impression Management: A Literature Review and Two-Component Model"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글로써, 인상 관리(impression management)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각인되는 인상에 의해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A)는 개인이 윤리적 소비라는 형태의 실천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높여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주어진 문제는 지문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 요약하는 능력을 넘어서, 제시문 (C)에 근거한 가상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해보고, 이를 다시 제시문 (A)의 논지와 연결시켜 반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문제 3은 학생들의 보다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복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예시 답안 및 번역

[문제 1]

— The passage points out that despite its importance, privacy is seriously violated in the digitalized contemporary society and that we need to be alert to this reality. With the advancements of technology, we get to enjoy revolutionary digital devices and services which have made our life easy and comfortable, but simultaneously facilitated surveillance of our daily activities. For an instance, the use of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such as Facebook and Twitter promotes to enhance personal intimacy among family and friends and expand social relationships by ‘friending’ with those with similar interests. However, SNS serve as an easy way for invasion of privacy through unintended expansion of social networking beyond personal control. For another, smartphones serve as a portable equipment combining a laptop, a camera, and a camcorder with a cellphone, which can be used anytime anywhere. We can easily take a picture or videotape, find our way by connecting to GPS, or check our email on the road. On the other hand, the ubiquitous use of smartphones signifies that you can be taken a picture of or videotaped anytime anywhere so that the personal side of your life can be exposed unknowingly, or that your location may be tracked down when you are connected to GPS. CCTVs and Blackboxes(camcorders equipped on the dashboard of a car) serve both for crime prevention and for random self-disclosure. Other digitalized systems, such as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fingerprint recognition system, computerized parking recognition system, all work both for convenience and surveillance. None the less, people indifferently accept the state of privacy invasion and surveillance without conscious awareness. Instead of just tacitly accepting comfort and convenience, we should beware of the reality that we are vulnerable to privacy invasion.

제시문은 디지털화된 현대 사회에서 사생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일상 행위들의 감시를 쉽게 만들어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혁명적인 디지털 장비와 서비스를 향유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의 사용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개인적 친밀성을 높이고, 유사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의 사회 관계망을 확장시켜 준다. 하지만 SNS의 사용은 개인적 통제를 너머 누가 의도하지 않아도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진다. 스마트폰은 휴대폰에 휴대용 컴퓨터, 카메라, 캠코더를 결합한 장비를 간편하게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것과 같아, 언제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돌아다니면서도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위치추적시스템(GPS)을 통해 길을 찾고, 쉽게 이메일에 접속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도처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이 될 수 있으며, 위치추적 장치에 접속 할 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범카메라(CCTV)나 ‘블랙박스’의 사용도 범죄 예방의 효용이 있는 만큼 무작위적 노출의 부작용을 수반한다. 그밖에 통행료 자동 지불 시스템, 지문 인식 시스템, 주차 인식 시스템과 같은 디지털화된 시스템들은 모두 편의성과 감시 두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생활 침해 상황을 인식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수용한다. 그저 편안함과 편리함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우리가 사생활 침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

[문제 2]

— Passage (A) illustrates the positive impact of consumers' ethical and responsible purchases on society. Although these purchases are individual, small actions, Passage (A) stresses that these responsible, active participations in social issue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ociety as voting does. In line with the positive impact of individuals' active participation on social change presented in Passage (A), Passage (B) illustrates the negligible, and even negative, impact the individuals' activities of showing support for social issues on social network sites(SNS) may have on society. Specifically, Passage (B) describes such supporting activities on SNS as a type of "slacktivism," and illustrates that such activities may give individuals self-satisfaction, but they cannot make a meaningful difference because these activities may not lead people to offline participation. In support for the argument presented in Passage (B), I can take an example from a charity issue. Some people may be active on Facebook by joining Facebook pages for charitable organizations and "liking" posts which ask people to help starving children in Africa. These activities may make them feel that they have done their part to help those in need. Thus, they may neither make donations nor volunteer their time or talent to charitable organizations, and are unlikely to feel guilty about not taking such an action. Since donations of money and time are essential to charitable organizations' humanitarian work, supporting activities on SNS described here alone cannot effect change. In short, Passage (B) and the example illustrated here stress that it is doers who produce a desired effect on social change, rather than talkers.

제시문 (A)는 소비자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구매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비록 이러한 구매들은 개인적이고 작은 행동들이지만, 투표가 사회 이슈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이와 같은 능동적인 참여가 사회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제시문 (B)는 사회 이슈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SNS상에서의 여러 활동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며,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B)는 SNS상에서의 이와 같은 활동들을 "게으르고 소극적인 행동방식"의 한 종류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런 활동들이 사람들에게 자기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이들을 오프라인 상에서의 참여로 이끌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회 이슈에 중요한 차이를 만들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구호(救護)에 관한 예를 들어, 제시문 (B)에 나타난 주장을 지지하고자 한다. 어떤 사람들이 구호단체의 Facebook 페이지에 가입하고, 아프리카의 굶주린 어린이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포스팅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Facebook상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하자. 단지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내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하기에, 구호단체에 기부하지도 않고 자원봉사자로 자원하지도 않으며, 실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돈과 시간의 기부는 구호단체의 인도적 구호 활동에 필수적이기에,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만으로는 구호 관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요약하면, 제시문 (B)와 위에 언급한 예는, 사회 변화에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 3]

The argument given in Question 3 refers to ethical consumption as a mere way of managing individual impression. Such argument is grounded on the view of Passage (C) that any individual's relationship with the society is determined by the impression that he/she wants to make on others. According to Passage (C), diet or plastic surgery is a means of improving one's self-image to increase their individual values in society. This argument has its limit because self-image making is solely understood as a way to get acknowledgement from others(in society). In contrast to this, Passage (A) argues that an individual can seek for his/her own ethical value in relation to the society by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voluntarily. Viewed from this argument of Passage (A), the argument in Question 3 can lead to the danger of reducing all the social activities of an individual to a mere matter of self-satisfaction, and thus, any ethically conscious activity such as purchase of fair trade coffee can be understood as another showing-off of an individual's self image. Confronted with this issue of impression management, each individual should get over the personal obsession of being perceived and evaluated by others and cherish his/her own ethical value by voluntary engagement in various social activities.

문제 3에 제시된 주장은 윤리적인 소비행위를 인상관리의 한 방편으로 여긴다. 이러한 주장은 타인들에게 각인되는 인상에 의해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결정된다고 보는 제시문 (C)의 관점에 근거한 것이다. 제시문 (C)에 의하면, 사람들은 성형수술이나 다이어트 등을 통하여 자신의 외모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이미지를 가꾸는 행위가 단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이에 반하여 제시문 (A)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사회와의 관계에서 스스로의 윤리적 가치를 찾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윤리적 소비라는 형태의 개인적 실천을 제시하고 있는 제시문 (A)의 관점에 근거해 볼 때, 문제 3의 주장은 개인의 모든 사회적 활동을 자기만족적인 가치로만 환원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의식적인 활동 또한 구매자 자신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시선에 따라 자신의 윤리적 행동을 과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상-관리의 논점과 관련하여 볼 때, 개인은 타인들에 의해 자신의 모습이 평가됨으로써 얻게 되는 자기만족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자신의 윤리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안 분량기준(예: 10~15줄)에 맞지 않으면 3점을 감점한다.

※철자, 구두법, 문법에 오류가 있을 때에 10점까지 감점할 수 있음.

※제시문의 표현을 7 단어 이상 연속해서 그대로 쓴 경우, 원 점수에서 무조건 10점 감점함.

[문제 1]

1. 요약 부분(15점)

- 문제적 상황(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진단
- 기술발달로 사생활 침해가 용이해짐
- 사람들의 무감각 + 경각심과 비판의 필요성

1) 문제적 상황 진단

- i) 사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no sense of the importance of privacy)
- ii) 사생활 침해(invasion(violation, infringement) of privacy)

2) 기술발달로 사생활 침해와 감시가 쉬워짐

- i) 사생활 침해와 감시가 컴퓨터와 같은 기술 발달로 더 용이함(Technological advances facilitate surveillance and invasion of privacy.)
- ii) 기술적 발달이 허용한 편리성이 사생활 침해와 감시의 용이도를 고양시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We should know that digitalized technological advances will easily heighten the level of privacy invasion and surveillance.)

3) 사람들의 무감각 + 경각심 필요

- i)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무감각과 암묵적 수용(tacit acceptance of privacy invasion without conscious awareness)
- ii) (사생활 침해가 동반됨에도 불구하고) 기술발달로 생활이 용이해진 점에 더 비중을 두는 점(the indifferent disregard of privacy invasion in preference to the advantages which come with technological advances)
- iii) 사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We need to see the importance of privacy in our life.)
- iv) 사생활 침해에 취약한 상황 대한 무관심과 조용한 수용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We should beware of the fact that we are vulnerable to privacy invasion.)
- v) 기술 발달이 주는 편리함을 인식 없이 그저 받아들이면 안 된다.(We should not just accept comfort and convenience of using technological advances.)

2. 예시 부분(15점)

- 예시(8점: 제시된 예가 2개 이상이어야 함)
- 논거 제시 (7점)

1) 가능한 예들

- i)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such as Facebook or Twitter
- ii) smartphones—> used as pocket video cameras, or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 iii)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 iv) camcorder equipped on the dashboard of a car(블랙박스)
- v)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통행료 자동 지불 시스템)
- vi) fingerprint recognition system(지문인식시스템)
- vii) computerized parking recognition system(주차 인식 시스템)

2) 논거 제시의 핵심 사항

- i) 기술발달이 우리의 삶에 이중적으로 기능함을 언급해야 함
- ii)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동시에 사생활 침해와 감시를 유발하기도 함
- iii) (1)의 요약 부분과 (2)의 예시 부분의 비중을 각 15점으로 채점하되, 완성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특히 예를 열거할 때, 지문의 논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열거만 하는 경우는 감점된다.
- ▶ 30점: 논거를 위한 적합한 예를 찾아 핵심 내용을 모두 언급하며 자신의 표현으로 잘 요약한 경우
- ▶ 20~29점: 요약과 예시를 제시하지만, 전반적으로 논리적 서술이나 디테일 제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경우
- ▶ 10~19점: 요약과 예시를 제시하지만, 논리적 서술이나 디테일 제시에 있어서 불충분한 경우, 혹은 요약과 예시 중 하나만 제시한 경우
- ▶ 1~9점: 전반적으로 문제의 의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경우
- ▶ 0점: 문제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또는 백지인 경우

[문제 2]

- ▶ 30점: (1) 제시문 (A)의 중심 주장(투표가 사회 이슈에 중요한 역할을 하듯, 일상생활에서의 능동적, 윤리적 소비가 사회 이슈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주장)과 제시문 (B)의 중심 주장(SNS 상에서 사회 이슈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현하는 행동은 게으르고 소극적인 행동방식의 하나이며, 사회 이슈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두 제시문간의 연계성(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사회참여와 SNS 상에서만 지지 또는 반대를 나타내는 수동적 사회참여의 차이)을 제대로 파악하였는가? (2) 적절한 예를 들어 제시문 (B)의 주장을 뒷받침 하였는가?를 고려하여 채점하며, (1)과 (2)의 내용상 비율을 2:1 정도로 서술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술한 경우이다.
- ▶ 20~29점: 위 (1)과 (2)의 내용을 모두 서술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 서술과 디테일이 조금 미흡한 경우이다.
- ▶ 10~19점: 위 (1)과 (2) 중 한 가지 내용은 설득력 있게 기술했지만, 나머지 한 가지의 내용은 논리적 서술과 디테일한 논거가 불충분한 경우이다.
- ▶ 1~9점: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중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경우이다.
- ▶ 0점: 문제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또는 백지인 경우이다.

[문제 3]

- ▶ 40점: (1) 제시문 (C)의 논지를 적용하여 제시문 (A)에 나타난 윤리적 소비를 해석하는 가상 주장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했는가? (2) 가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 근거를 적절한 논리와 근거에 따라 제시문 (A)의 논지로부터 진술했는가? 이 두 가지를 고려하여 채점하며, (1)과 (2)의 내용상 비율을 2:3 정도로 서술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기술한 경우이다.
- (1) 제시문 (C)의 논지를 설명할 시에—a.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개인의 이미지 개선 노력 b. 인상관리의 한 방편으로 서의 윤리적 소비행위 c. 타인에 의한 인상 평가로 얻어지는 개인적 자기만족—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 (2) 가상 주장의 논점이 개인의 모든 사회적 활동을 자기만족적인 가치로만 환원시키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a. 윤리적 소비가 개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 b.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윤리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음—두 가지를 포함한다. 그 밖의 타당한 근거의 완성도에 따라 점수 부여한다.
- ▶ 30~39점: 가상 주장의 문제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박의 근거 면에서 비교적 논리적으로 기술하지만, 디테일한 기술에 있어 완성도가 조금 미흡한 경우이다.
- ▶ 20~29점: 문제점이나 반박의 근거 중 한 부분이 매우 미흡한 경우이다. 논리적 서술과 디테일한 논거가 불충분하다.
- ▶ 10~19점: 문제점이나 반박의 근거 중 한 가지에만 치중되어 문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 ▶ 1~9점: 전반적으로 문제의 의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경우
- ▶ 0점: 문제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또는 백지인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캠퍼스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02)820-5114, 6114(대)
안성캠퍼스 456-75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TEL.(031)670-3114, 4114(대)
입학상담 서울캠퍼스 입학처 TEL.(02)820-6393 <http://admission.cau.ac.kr>
장학상담 서울캠퍼스 학생지원팀 TEL.(02)820-6048, 6049
 안성캠퍼스 학생지원팀 TEL.(031)670-3392
기숙사상담 서울캠퍼스 생활관 TEL.(02)881-7042
 안성캠퍼스 생활관 TEL.(031)670-3482

Chung Ang University

서울캠퍼스 교통안내

● 버스

버스(지선버스) 흑석 5511 5517 5524 6411

버스(간선버스) 흑석 151 350 360 362 462 640 642 752
 상도 501 506 750A 750B

버스(광역 및 공항버스) 흑석 9408 6000 6016



● 지하철

9호선 흑석(중앙대입구)역 4번 출구 도보 10분 거리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중앙대 후문까지 도보 10분 거리

– 학교 셔틀버스 : 상도역 ⇨ 중앙대 후문 ⇨ 중앙대 정문

– 마을버스(01번): 상도역 ⇨ 이화약국 ⇨ 중앙대후문 ⇨ 중앙대중문 ⇨ 중앙대정문

– 마을버스(21번): 상도역 ⇨ 이화약국 ⇨ 중앙대후문 ⇨ 중앙대중문 ⇨ 중앙대정문

– 마을버스(10번): 상도역 ⇨ 이화약국 ⇨ 중앙대후문 ⇨ 중앙대중문 ⇨ 중앙대정문

1호선 노량진역 1번 출구 셔틀버스, 마을버스 이용(15분 거리)

– 학교 셔틀버스 : 노량진역 ⇨ 상도역 ⇨ 중앙대 후문 ⇨ 중앙대 정문

– 마을버스(01번) : 노량진역 ⇨ 상도역 ⇨ 이화약국 ⇨ 중앙대 후문 ⇨ 중앙대 중문 ⇨ 중앙대 정문



안성캠퍼스 교통안내

● 시외버스

• 고속버스 :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안성행 버스 이용(약 1시간 소요)

• 직행버스 :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안성행 버스 이용(약 1시간 소요)

● 자동차

• 경부고속도로 이용하여 안성(평택)IC로 진입하여 우회전
 (38번 국도, 차량으로 10~15분 소요)

젊은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열한번째 이야기

말재주가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리 밋을 내지도 않지만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니까요
행복한 사람만큼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